

이통3사 '암울한 1분기'... 통신비 인하·5G 투자 등 영향

전년동기비 영업이익 7% 이상 감소
투자 늘지만 시장 포화... 수익 미미
새 회계기준 적용으로 혼란 예상

이동통신 3사의 올해 1·4분기 실적은 통신비 인하 움직임, 선택약정할인 25% 가입자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어두운 전망이다.

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3일 KT를 시작으로 4일 SK텔레콤·LG유플러스의 실적발표가 예정돼 있다.

증권가에서는 선택약정할인 25% 가입자 증가와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제 개편 등 이익 감소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번 실적발표는 새 회계기준이 적용돼 다소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KT·KT는 '흐림', LGU+은 '선방'

시장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이동통신 3사의 1·4분기 전체 매출이 약 13조 원, 영업이익이 약 9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7% 넘게 감소하게 된다.

각 사별로는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KT는 흐린 반면,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3사 중 유일하게 선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시민이 판매 게시물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각 4조3000억원대, 4000억원으로 예상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0.8% 증가, 영업이익은 0.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KT도 매출은 같은 기간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이나 영업이익은 5%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5G 투자·통신비 인하 압박에... 향후 전

망도 '우울'

이동통신 3사의 실적이 대체적으로 어두운 원인은 25% 선택약정할인, 요금체계 개편 등의 이유가 꼽혔다.

지난해 9월 선택약정 할인이 20%에서 25%로 상향되고, 이를 선택하는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5%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가 1006만명을 기록했다

고 밝혔다. 이 같은 추세면 올 연말 25%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는 약 24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6월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 후 최소 경매가가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 5G 주파수에 대한 설비투자 부담도 산적하고 있다. LTE 네트워크 구축에 약 15조원 가량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5G 투자에는 약 20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향후 들어갈 자금은 많지만,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으로 롱테일부러선(LTE) 가입자 유치를 통해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1분기 이동전화 번호이동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4% 줄어든 140만명을 기록해 분기 기준으로 2004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새 회계 기준 'IFRS 15'이 새 변수

올 1·4분기부터 새 국제회계기준 'IFRS 15' 적용된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IFRS 15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새로 마련한 수익인식 기준으로, 회사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상장사에 전면 도입됐다.

새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가장 달라지는 점은 마케팅비의 일부가 분산 반영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계약이 체결되면 일시에 수익에 반영했지만, 앞으로

는 계약 기간에 따라 분산 반영하거나 제품 인도 시점에 반영해야 한다. 통신사의 경우 보조금 등의 마케팅 비용을 약정 기간에 걸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거의 마케팅 비용도 당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판매장려금이나 공시지원금 등의 마케팅 비용을 한번에 반영하지 않고, 24개월로 나눠서 반영하는 식이다. 이 경우 선택약정 가입자가 급증하면 단말 매출이 더욱 타격을 받게 된다. 요금할인액은 서비스 매출에서 약정 기간 분산 차감되지만, 단말 매출액에서는 판매 시점에 일시에 차감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IFRS 15 적용 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부정적 효과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6년 가입자유치비용 증가와 단말기 매출액 감소분을 감안하면, IFRS 15 전환에 따라 통신사 영업이익의 감소분은 SK텔레콤은 1629억원, KT는 1038억원, LG유플러스 742억원으로 추산된다.

하나투자증권 김홍식 연구원은 "IFRS 15 도입으로 통신사 회계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져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 전망"이라며 "특히 선택약정요금할인 가입자가 급증할 경우 당기 단말기매출액이 급감해 특정 분기에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1일 행인들이 용산역에 설치된 'LG G7 ThinQ 스퀘어'를 살펴보고 있다. /LG전자

'LG G7 씽큐' 공개 D-2... 용산역에 체험존

광고모델 방탄소년단 인사 영상 담아

LG전자가 차기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G7 씽큐(ThinQ)' 공개를 이틀 앞두고 막바지 점검을 서두르고 있다.

LG전자는 3일 서울 KTX 용산역에 제품 체험존 'LG G7 씽큐 스퀘어'를 설치하고 언론 대상 공개 행사를 열 예정이다. 행사가 끝난 4일부터는 일반 고객들도 체험해 볼 수 있다.

LG G7 씽큐 스퀘어는 신제품에 탑재된 새로운 기능들을 고객들이 꼼꼼히 체험해 보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LG G7 씽큐 100여 대를 배치하고 디스플레이, 카메라, 오디오 기능별 체험존으로 구성된다.

또 LG G7 씽큐와 LG 스마트 가전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연동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LG G7 씽큐 스퀘어는 224㎡ 규모로, 공개 시점까지는 안이 보이지 않도록 높이 2.5m의 검은색 벽을 설치했다.

입구에는 가로 3.4m, 세로 2m 크기의 대형 사이니지를 설치해 신제품 티징 광고 영상과 LG G7 씽큐 글로벌 광고 모델인 방탄소년단의 인사 영상을 상영한다.

LG전자는 4일부터 용산역을 비롯해 전국 40여 곳에서 'LG G7 씽큐 스퀘어'를 운영하며 고객들이 쉽게 신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LGU+, 300여개 골프장 실시간 예약서비스

그린웍스와 공동 마케팅 전략적 제휴

LG유플러스는 골프부킹서비스 '엑스골프'를 제공하는 그린웍스와 공동 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LG유플러스는 자사 'U+골프' 애플리케이션(앱)에 엑스골프와 제휴돼 있는 전국 300여개 골프장의 실시간 예약 서비스를 연동해 제공한다. 또 이를 기념해 U+골프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인증을 받은

모든 고객에게 엑스골프 유료회원권을 지급한다.

유료회원권은 엑스골프 홈페이지 내에서 주중 및 주말 골프장 예약과 엑스골프에서 주최하는 골프 박람회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멤버십이다.

77만명의 국내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엑스골프는 자사 가입자중 LG유플러스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U+골프 서비스 홍보 및 인스타그램을 통한 인플루언서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한다. /김나인 기자

“아리아~ 문자 보내줘” T맵 음성문자 도입

SK텔레콤 'T맵×누구' 기능 추가
음성인식 반응속도 30% 이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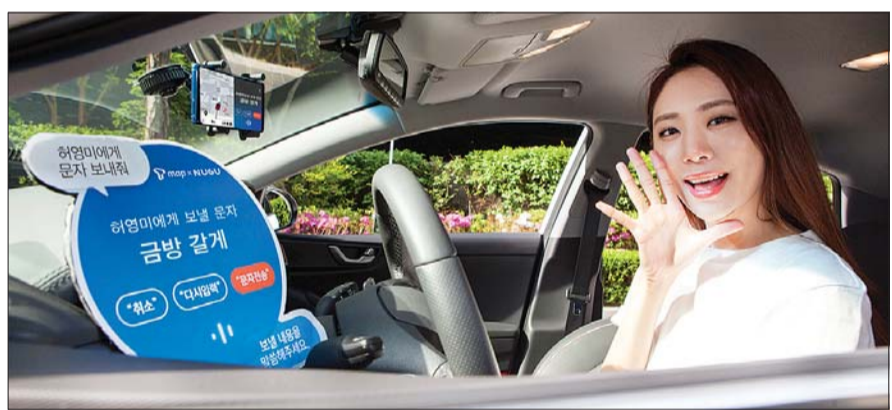
SK텔레콤은 모바일 내비게이션에 인공지능(AI)을 접목시킨 'T맵×누구'에 운전자의 안전한 주행을 위한 음성 문자 수·발신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음성 문자 수·발신 기능은 스마트폰 화면 터치나 별도의 조작 없이 “아리아, (받는 사람에게 (내용) 문자 보내줘”라고 말하면 이용할 수 있다.

또 “아리아, 문자 보내줘”, “아리아, (받는 사람에게 문자 보내줘”, “아리아, (내용) 문자 보내줘”라고 말해도 받는 사람이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문자 수신은 받은 문자 내용을 음성으로 듣는 형태로 이용 가능하다. 해당 기능은 문자 수신 시 “아리아, 문자 읽어줘”라고 말하면, 'T맵×누구'로부터 받은 문자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다.

또 수신문자를 듣는 도중 발신자에게 전화를 걸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문자를



모델이 T맵의 업데이트 소식을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들을 경우 '이전' 혹은 '다음' 등의 명령어로 특정 문자를 선택할 수 있다. 광고 문자는 '광고문자예요'라고만 읽는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음성인식 반응속도를 기존 대비 30% 이상 개선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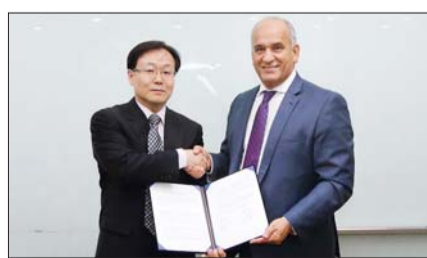
음성 문자 수·발신 기능 추가를 위한 T맵 업데이트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플레이스토어'와 '윈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4주간 T맵 이용자의 안전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T맵 내

'운전습관'의 점수를 확인한 결과, 음성 기능을 3일 이상 사용한 운전자의 평균 점수가 64점을 기록, 음성 기능 미사용자와 비교해 평균 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습관 점수는 T맵 이용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급가속이나 급정거 여부 등을 반영해 추산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은 운전자들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률이 낮아 보험사의 안전주행에 따른 보험료 할인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김나인 기자

KT, 아칸티아와 5배 빠른 기가인터넷 개발



KT 융합기술원 김현표 상무(왼쪽)와 아칸티아의 파라지알라이(Faraj Aalaei) CEO가 '10Gbps급 인터넷 칩셋 개발을 위한 MOU'를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

랜선 10기가급 인터넷 칩셋 MOU

KT는 글로벌 칩셋 개발사인 아칸티아와 LAN선 기반의 10기가(Gbps)급 인터넷 칩셋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기술로는 LAN선 2쌍으로 최대 속도 1기가비피에스(Gbps)까지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 기술을 활용하면 같은 LAN선 2쌍으로 최대 2.5Gbps까지 속

도 제공이 가능해진다. 국제표준(IEEE 802.3bz)을 준용해 LAN선 4쌍으로 최대 5Gbps까지 제공할 수 있다. 설치 환경에 따라 시스템이 선로의 품질을 판단해 1~5기가까지 최적 속도를 자동 제공한다.

특히 2000년 이전에 건축된 빌딩의 경우 구내배선 대부분이 한 세대당 LAN선 2쌍으로 설치돼 있어 1Gbps 이상의 속도 구현이 어려웠다. 회사 측은 이 기술 개발로 대부분 지역에서 회선 공사 없이 기존 랜선으로 최대 2.5Gbps 이상의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